

목포 장좌도 해양리조트 조성 '순항'

전남도·목포시 기반시설 등 지원
236객실...민자1500억 투입
워터파크 등 내년 하반기 준공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감도.

목포시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이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목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 중인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은 올해 3월 착공해 현재 임시도로 개설과 잡목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맛의도시 브랜드와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관광객 증가세를 촉발시켰다. 이어 지난해에는 목포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목포 관광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 유인을 위해 레저시설을 겸비한 대규모 리조트 유치를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시는 2019년 7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해 전남도, 민간사업자(주)여수예술랜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장좌도는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3km 떨어져 있는 대지면적 29만6000㎡, 시설면적 10만7000㎡의 섬으로 여객선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등 육지와 접근성이 뛰어나다.

장좌도 리조트에는 236개 객실이 들어서고 워터파크가 조성된다. 레일바이크, 썰라인, 스카이스카일 등 각종 즐길거리와 푸드코트, 바비큐장,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인 양떼목장과 19만㎡ 규모

의 녹지도 마련된다.

목포가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바다와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레저 복합 대형리조트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장좌도 리조트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했고,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최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해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전남도는 제4차 도농융합개발사업(2018-2027년)에 반영된 장좌도 선착장 조성 사업을 지난 3월 일부 완료해 선착장의 선박 접안 여건과 승객 승하선 불편을 개선했다.

도는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진

됨에 따른 지역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해 도비 3억원 등을 추가 지원했고 총사업비 11억원으로 선착장(길이 96.5m, 폭 7~10m)을 조성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관광수용태세 구축을 위해 삼학도에는 목포 관광의 필수 인프라인 컨벤션시설이 포함된 5성급 호텔 건립을, 장좌도에는 1500억원 규모의 명품 레저 숙박시설인 해양관광리조트가 민간투자자로부터 목포 관광산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융합해 목포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좌도 해양리조트 사업자인(주)여수예술랜드는 지난 2018년 여수시 돌산을 평사리 굴전 마을에 1000억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숙박시설, 미술공원, 전시관 등 테마형 리조트를 조성해 지역 관광을 선도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장성군 동네 해결사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지역별 12개 기동대 94명 참여
집수리·복지사각 발굴 등 역할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전남 장성군의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는 총 12개의 지역별 기동대로 구성돼 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마을 아·동장을 비롯해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등 94명이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의 주민들이 전등, 수전, 콘센트,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복지기동대가 출동해 직접 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겨준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민간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가 출동해 도움을 준 곳은 총 59가구에 이른다.

물품 구입비와 전문업체 위탁 비용 등 활동에 소요되는 총예산 규모는 9350만원으로, 장성군과 전남도가 각각 7대3으로 부담하는 도 보조사업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재능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는 지역사회를 감싸는 포근하고 든든한 울타리"라면서 "민관 협력 복지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실생활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신안 여행홍보 SNS 누르면 특산품 '한눈에'

'햐트고 신안' '1004몰' 연계 운영
농수산물 + 여행 6차산업 선도

신안군이 여행홍보 SNS채널 '햐트고 신안'과 온라인 특산품 판매사이트 '신안1004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기를 더하고 있는 '햐트고 신안'의 여행 콘텐츠와 신안 특산품을 연결해, 여행이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수산물(1차 산업)과 그 가공품(2차 산업), 여기에 여행(3차 산업)까지 결합한 6차 산업으로의 도약이어서 주목된다.

신안군은 2019년 8월 SNS채널 '햐트고 신안'을 개설해 주 2~3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신안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장소 등을 소개하고 있다.

'햐트고 신안'은 2019년 2만8441회, 2020년 37만1122회, 2021년 7월 현재 15만2136회 등 총

55만1699회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며 감염병 사태에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8월까지 220여 건의 콘텐츠가 포스팅 되면서 신안군 문화 자료 보관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N 포털 '우리동네 여행판', '여행+'에도 신안의 콘텐츠들이 지속해서 소개돼 신안여행과 신안군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신안군은 '햐트고 신안'의 인지도를 지역 농수 특산품 판매와 연결시킬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설한 '신안1004몰'과 '햐트고 신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구매력 상승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추석을 기점으로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2년에는 '통합 운영' 체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행으로 한층 좋아진 신안의 이미지를 특산품 구매로 연결시키겠다"며 "신안의 맛과 멋이 놓인 소득과 지역경제에 꾸준히 기여하는 6차 산업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순천만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이용객 두 배 이상 증가

순천시 지난 3월 무상 인수 운행
통합발권 할인·요금제 다양화
순천만정원 입장객 탑승률 경증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가 지난 3월 무상 인수한 순천만 경전철 스카이큐브가 안정적으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스카이큐브 재개장 이후 8월 말까지 국가정원 입장객은 54만 5537명이었으며, 스카이큐브 탑승객은 7만29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입장객 대비 12.7%의 탑승률을 기록했으며, 기존 운영 기간 평균 탑승률 5.3%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다.

탑승객 증가는 운영 재개 후 통합발권 할인, 갈대 열차 운행, 요금제 개선 등 기존 운영체계와는 다른 방안의 효과로 분석된다.

시는 스카이큐브 운행재개와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갈대 열차, 순천만 습지를 연계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통합발권제를 도입했다. 문학관 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의 갈대 탐방로

에 친환경 전기 갈대 열차를 운행해 관람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구간 편의시설 확충과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 8월 조례 개정으로 무료 입장객 및 1년권 소지자, 관광지 통합입장권 소지자가 국가정원 입구에서 매표 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선발권 할인 제도를 실시한 이후 입장객 대비 탑승률은 16.1%로 평년대비 3배 증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국가정원 입장객 및 스카이큐브 탑승객이 3분의 1 수

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2021년에도 운영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탑승률 증가에 따라 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2011년 1월 순천시와 포스코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포스코가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개통했다. 2019년 계약 이행상 다름으로 대한상사원 중재판정에 따라 올해 3월 26일 순천시가 무상인수해 운영 중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함평군, 모든 군민에 재난지원금 20만원 지급

함평군이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함평 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9월13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1650명이다.

군은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추가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군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했다.

군은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3),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평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0만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국민지원금을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